군종주보

2026년 11월 22일(제1327호)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성시 주간)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 씀

"양과 염소, 나는 어디에 가까울까?"

오늘은 전례력의 마지막 주일 곧, 교회 달력의 마지막 주일인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오면 연말 시상식이 열리기도 하고, 송년회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또 연말 가계부 결산을 하거나 한 해 동안 이뤄낸 목표와 성과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은 연말에 일상적으로 하는 결산을 넘어, 더 진지하고 근본적인 성찰을 하도록 이끌어줍니다.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과 염소'를 함께 방목하다가 저녁에는 갈라놓았다고 합니다. 염소는 따뜻하게 해 주어야 하고, 양은 털이 많아 열린 장소를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양과 염소가 같은 장소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뛰놀았더라도 때가 되면 서로 구별됩니다. 자신의 본성과 습성(習性, habitus)에 따라 갈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의 반복을 통해 어떤 습성을 형성하느냐에 따라 양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염소에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가 양이나 염소 중 하나에 가까워지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복음에 나오는 대상이 '굶주린 이, 나그네, 헐벗은 이, 병든 이, 감옥에 갇힌 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이를 위해 기도하고, 주변에 힘들어하거나 외로워하는 전우와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커피나 핫초코 한 잔', '위로와 격려의 손길' 등을 나누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가장 작은 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하는데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실 것입니다. 1독서에서 에제키엘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때문입니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내 양 떼를 찾아서 보살펴 주겠다." "내가 몸소 내 양 떼를 먹이고, 내가 몸소 그들을 누워 쉬게 하겠다." "잃어버린 양은 찾아내고 흩어진 양은 도로 데려오며, 부러진 양은 싸매 주고 아픈 것은 원기를 북돋아 주겠다."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주님께 힘을 얻어, 곁에 있는 가장 작은 이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양에 가까워지는 전례력의 마지막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오(요셉) 신부
강철(육군 제50보병사단) 성당 주임

제 1 독 서	에제 34,11-12.15-17
화 답 송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제 2 독 서	1코린 15,20-26.28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복 음	마태 25,31-46
영 성 체 송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천주교 군종교구사(군 사목 50년사)

이렇게 진해지역에서 활동하였던 두 신부가 1957년 5월에 전역하게 되자 해군사관학교도 사목의 공백기를 갖게 되었다. 1년의 공백기가 지난 뒤 김은식 신부가 1958년 7월에 진해 통제부에 부임하면서 해군사관학교의 군종활동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1950년대의 해군사관학교 천주교 군종활동은 진해 통제부에 부임하는 신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정기적인 미사 등 천주교 활동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61년 1월 조순창 신부가 통제부에 부임하여 사관생도들을 위한 정기적인 미사와 교리 강좌를 시작하면서 해군사관학교의 천주교 활동은 점차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3. 공군의 천주교 군종활동

1) 공군 군종활동의 시작

1951년 11월 대구의 공군본부 연병장에서 '공군 군목업무발족 강연회'가 개최되었다. 타군에서는 군종활동이 시작됨으로써 장병들이 종교생활의 지도를 받을 수 있으니 공군에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한 하사관의 요청과 미 5공군 군목 페터슨(Chap. Col. Patterson)의 자문이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1952년 2월 10일, 공군본부 강당(대구 서부 국민학교)에서 육군의 조인원 신부와 김형도 목사에 의해 첫 미사와 예배가 봉헌되었다. 공군은 육군본부 군목과에 지원을 요청하였고, 조인원 신부와 김형도 목사가 45일간 매주일 공군본부 교회에서 미사와 예배를 집전해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육군의 도움을 받다보니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군종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도 어려웠다. 이에 공군은 군종을 정식으로 확보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우선 육군의 신부와 목사 1명씩을 공군에 편입 조치하였다. 〈다음 주에 계속〉

『천주교 군종교구사(군 사목 50년사)』 발췌, 천주교 군종교구

묵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설령 그 자리라도

그 걷는 길이,
붉은 양탄자가 아니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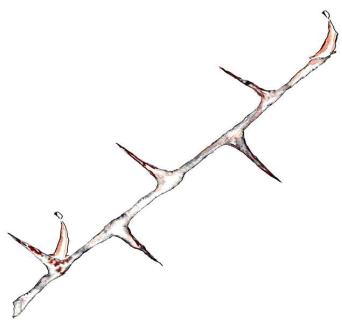
그 서는 곳이,
환호의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도.

설령,
그 걷는 길이,
붉은 피를 뿌린다 하여도.

설령,
그 서는 곳이,
야유에 비난의 자리라 해도.

그 자리에,
함께 서고 싶습니다.

당신이 내 곁에 서준 것처럼.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성화이야기

성체 축일 행렬의 귀환



쿠스코 회파, 작자 미상 / 1680년경 제작
캔버스에 유화, 226.5×324cm / 페루 쿠스코 대교구 대주교궁 미술관

본 작품은 17세기 페루 쿠스코에서 거행된 성체 축일(Corpus Christi) 행렬이 대성당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웅장한 대성당 앞 광장에 성직자와 귀족, 원주민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다. 그림 상단에는 성인들의 조각상을 올린 화려한 가마들이 줄지어 있는데, 왼쪽에는 아기 예수님을 어깨에 메고 있는 크리스토포로 성인, 중앙에는 성모자상, 오른쪽 끝에는 화살에 맞아 순교한 세바스티아노 성인 등이 보인다. 붉은 깃발과 십자가, 금빛 장식 등 화려하게 장식된 행렬과 그 행렬에 참여한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림 중앙의 금실로 수놓은 화려한 제의를 입은 성직자들이 행렬을 주도하는 가운데 그 주위에는 흰 옷을 입은 복사들과 검은 의복의 수도자들이 보인다. 특히 화면 왼쪽 아래에는 깃털 장식의 머리관과 화려한 의상을 착용한 잉카 원주민들이 있는데, 이들은 긴 막대와 장식물을 들고 행렬에 참여하여, 유럽의 가톨릭 의식과 안데스 지역의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독특한 풍경을 자아낸다.

이 작품은 수많은 인물과 의상, 종교적 상징물을 놀라울 만큼 세밀하게 묘사했다. 인물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깃발을 펄럭이거나 행렬에 참가하기도 하고, 또 성스러운 조각상을 바라보거나 기도하는 등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엄숙한 종교 의식과 활기찬 축제의 분위기가 공존하는 가운데, 17세기 쿠스코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을 현재의 우리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종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그리스도 왕 대축일: 명성대 이한유 신부

◆ **교구장 동정**

- **증평103위성인(제37사단) 성당 사목방문**
  때: 11월 22일(주일)
- **한국가톨릭원목자협회 2026년 추계 상임위원회의**
  때·곳: 11월 24일(화) 15:00, 화상회의
- **승진(제5군단) 성당 방문**
  때: 11월 26일(목) 16:00

“ ‘작은 기정교회’ 를 이루는 온인성사의 해”